

나는 타이거즈맨이다



양현종이 KIA와 세 번째 FA계약을 맺으면서 '영구 결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손흥민, 토트넘 팬과 작별 시간 갖는다

10일 '홈 커밍 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10년 동안 활약한 손흥민(LAFC)의 '홈 커밍 데이'가 결정됐다.

토트넘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클럽을 떠난 이후 처음 토트넘 홋스퍼 경기장을 방문한다"며 "오는 10일 SK 슬라비아 프라하(체코)와의 2025-202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6차전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토트넘의 2024-

2025 유로파리그(UEL) 우승을 이끌었던 손흥민은 지난여름 한국에서 열린 프리시즌 투어 기간에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FC 이적을 발표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느라 손흥민은 토트넘 팬들과 제대로 된 작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은 프리하전 킥오프를 앞두고 선수단 입장 전에 그라운드를 밟을 예정이다. 2015년 레버쿠젠(독일)을 떠나 팀에 합류한 뒤 10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직접 팬들의 마음에 보답할 시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세 번째 FA' KIA 양현종, 2+1년 계약금 10억 등 45억 '사인' '영구 결번' 도전 이어가...한숨 돌린 구단, 조상우 계약만 남아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영구결번'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KIA가 4일 양현종과 계약 기간 2+1년, 총액 45억원(계약금 10억원, 연봉, 인센티브 포함)에 FA 계약을 마무리했다. 2016년과 2021년에 이은 세 번째 계약이다.

지난 2007년 광주 동성고를 졸업하고 2차 1라운드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2016시즌 처음으로 FA 권리를 행사했다.

당시 계약은 '해외 진출'에 방점이 찍혀있었다.

2014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으로 빅리그행을 노렸던 양현종은 꿈이 무산된 뒤 FA 선수로 2015년 겨울 해외 진출을 타진했다. 양현종이 해외 진출을 선언하면서 KIA는 전력 보강에 초점을 맞춰 최대 어였던 최우수를 '100억 사나이'로 영입했고, 프랜차이즈 스타 나자와과 계약도 성사시켰다.

뒤늦게 양현종의 국내 복귀가 결정되면서 '총알'을 소진한 KIA는 단년 계약이라는 묵수를 냈다. 양현종이 해외 진출을 강조했던 만큼 해외 도전을 원할 경우 자유계약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특별 대우도 했다.

'연봉킹(23억)' 자리를 지킨 양현종은 해외 진출 대신 KIA 에이스 역할을 선택했다. 사실상 4년 FA 계약이었다.

양현종은 2020시즌이 끝난 뒤 친구 김광현에 이어 미국 진출을 노리면서 잠시 팀을 떠났다.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은 양현종은 2021 시즌 5.60의 평균자책점으로 3패만 기록했지만, 12경기에 나와 35.1이닝을 소화하면서 빅리거 꿈을 이뤘다.

아쉽게도 1년 만에 빅리그 도전을 마무리한 양현종은 이해 겨울 계약기간 4년, 총액 103억(계약금 30억원, 연봉 25억원, 옵션 48억원)에 계약하면서 KIA 복귀를 완료했다.

양현종은 국내 복귀 첫 시즌인 2022년, 30경기에

나와 175.1이닝을 소화하면서 3.85의 평균자책점으로 12승 7패를 수확했다. 2023년(평균자책점 3.58·9승 11패)과 2024년(평균자책점 4.10·11승 5패)에도 각각 171이닝과 171.1이닝을 던지면서 KBO리그 첫 10년 연속 170이닝 기록을 만들었다.

올 시즌에는 30경기에서 5.06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9패의 성적에 만족했지만, 부상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153이닝을 더했다. 리그 최초의 11시즌 연속 150이닝 투구다.

이와 함께 양현종은 KIA에서 18시즌을 보내면서 543경기(2656.2이닝), 186승 127패 9홀드, 2185탈삼진, 평균자책점 3.90을 기록하고 있다.

리그 최다 선발 출장 1위(442경기), 최다 선발승 1위(184승), 최다 탈삼진 1위, 역대 최다 이닝 2위에 이름을 옮기고 있는 양현종은 이번 계약으로 '영

구결번'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한 여정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이번 계약으로 KIA는 '집토끼' 조상우와의 계약만 남겨두고 있다.

올 시즌이 끝난 뒤 KIA에서는 '최대어' 박찬호와 함께 조상우(이상 A등급), 이준영(B등급), 최형우·양현종·한승택(이상 C등급)이 FA 자격을 얻었고, 3명의 이적이 확정됐다.

박찬호가 4년 총액 80억(계약금 50억원·연봉 총 28억원·인센티브 2억원)의 대형 계약으로 두산으로 떠났고, 최형우는 2년 총액 26억원에 친정팀 삼성으로 돌아갔다.

앞서 한승택은 KT와 4년 총액 10억(계약금 2억원, 연봉 총 6억원, 인센티브 2억원)에 계약을 했다.

KIA는 11월 23일 이준영과 계약 기간 3년 총액 12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3억원)과 협상을 완료했고, 양현종과의 계약도 마무리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양현종(왼쪽)이 4일 FA 계약을 마무리한 뒤 챔피언스필드에서 심재학 단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FC, 내일 코리아컵 결승전

서울서 전북현대와 한판승부
부상 복귀 김진호 출격 대기

광주FC의 김진호가 남다른 각오로 결전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FC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1 우승팀' 전북현대를 상대로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 나선다.

대한민국 최강 클럽을 가리는 자리에서 광주는 창단 첫 우승을 노린다.

아시아무대를 한한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코리아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면 ACL(아시아챔피언스리그) 20예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ACLE와 코리아컵 그리고 정규리그까지 쉽 없이 달려왔던 광주의 2025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무대. 이정호 감독과 선수들은 남다른 마음으로 12월 6일을 기다려왔다.

김진호에게는 더 특별한 'D데이'다.

지난해 강원FC에서 이적한 김진호는 광주에서의 첫해 36경기에 출전하면서 수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정호 감독은 김진호에게 부주장도 맡기면서 더 많은 역할을 강조했다.

김진호는 꿈의 무대 ACLE에서도 활약하면서 거침 없는 시즌을 보냈지만 지난 5월 18일 포항 원정경기에서 시련을 맞았다.

이날 선발로 그라운드에 오른 김진호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왼쪽 무릎을 잡고 주저앉았다. 심지어 대파열 진단을 받은 그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그대로 시즌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김진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김진호는 굳은 의지로 재활에 나섰고, 예상보다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스파이크를 신었다.

그는 이정호 감독의 부름을 받고 지난 11월 22일 울산과의 홈 폐막전에서 대기 선수로 준비했다. 30일 수원FC와의 시즌 최종전에서도 출격을 준비했다.

두 경기에서 모두 출전이 불발되면서 김진호는 코리아컵을 복귀전으로 삼게 됐다.

김진호는 "처음 부상을 당하고 시즌 아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재활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랐다. 코리아컵 결승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다. 아무래도 많은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한 광주FC 김진호가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을 통해 복귀전에 나서게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트리우마로 힘든 것은 있지만 몸상태는 좋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격 준비를 끝낸 김진호는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마지막 경기에서 동료들과 우승의 순간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김진호는 "올시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선수로서나 사람으로서나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며 "코리아컵 결승전을 바라보고 열심히 재활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팀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즌 중반 부상으로 고전한 이민기를 대신해 주장 완장을 찬 '캡틴' 이강현에게도 승리가 간절하다.

이강현은 이 경기를 끝으로 김천상무 유니폼을

입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는 결혼식을 앞둔 '새신랑'이기도 하다.

이강현은 코리아컵 결승 다음날인 7일 오후 6시 서울 엘리나호텔 임페리얼홀에서 신부 김주희 양과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강현은 길었던 올 시즌 묵묵히 응원을 보내준 신부에게 '우승'을 선물하겠다는 각오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